오늘의 주도주 | judoju.kr

2026.11.06 (금) 07:21 생성

장전 브리핑 · 개장 전 필수 체크

美 블루쓰나미·AI 규제 공포에 나스닥 5.5% 폭락, 코스피 패닉 출발 경계

📊 글로벌 마감 지표

S&P500 7,353.73 (-4.36%)	나스닥 24,315 (-5.52%)	다우 51,523 (-3.44%)	필라반도체 9,011.14 (-12.25%)
WTI 91.20 (+3.50%)	금 4,097.90 (+0.61%)	비트코인 75,979 (-5.50%)	원/달러 1,357.88 (+1.12%)
달러인덱스 101.58 (+0.07%)	영국FTSE 10,783 (-0.43%)	독일DAX 26,325 (-0.43%)	

🔥 핵심 이슈

1 美 나스닥 5.5% 폭락·반도체 12% 급락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블루 쓰나미')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현실화되며 나스닥이 5.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25% 폭락했다. 엔비디아(-9.2%), 테슬라(-10.8%) 등 AI·반도체 주요 종목이 직격탄을 맞아 기술주 조정장 진입이 선언됐다.

뉴욕증시, AI 기술주 투매에 급락...나스닥 5.5%↓... [속보] AI 기술주 던지자 나스닥 5.5%↓...테슬라·스페이스X 500조 증발...

2 코스피 패닉 출발·반도체주 추가 급락 우려

전일 코스피는 이미 5%대 낙폭으로 5400선이 붕괴됐으며,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에서 3조 원 이상을 매도했다. 미국 반도체 지수 12% 추가 폭락으로 금일 국내 증시도 패닉 출발 가능성이 높아 추가 하락 압력이 불가피하다.

美 증시 폭락에 코스피 '투매 공포'...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급락 우..... 美 반도체 12% 폭락에 국내증시 '패닉 출발' 가능성 예고...

3 AI 규제 강화·데이터센터 압박 현실화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으로 AI 및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강화는 국내 반도체·서버 관련주에 직접적인 수요 위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뉴욕증시]민주 2008년 이후 최대 승리...AI 규제 우려에 나스닥 5%대 폭..... [증시전략] 美 민주당 압승,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현실화될까?...

4 외국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규모 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20조 원 규모의 매도세를 보이며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뷰티·방산 섹터에는 일부 순매수가 유입되는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다.

외국인 매도 속도 두 배로...삼전닉스 20조 던졌다[엑소더스 외국인, 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바이오·뷰티·방산은 담아...

5 WTI 유가 반등·에너지 변수 부상

전날 8%대 폭락 이후 WTI가 3.5% 반등해 배럴당 91.2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유조선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발 매수세가 맞물리며 에너지 관련주 및 국내 항공·정유 업종에 영향을 줄 변수로 주목된다.

美 중간선거 뒤 유가 8% 급락...석유류가 밀어올린 물가, 11월엔 꺾일까... 국제유가, 중간선거 후 반발 매수세에 반등...WTI 2.7%·브렌트 3.9%↑...

6 ARM 주가 11% 급락·AI 반도체 밸류 재점검

ARM이 매출 27% 성장이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과잉 기대감 조정과 스마트폰 시장 부진 우려로 주가가 11% 급락했다. AI 반도체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압력이 국내 관련 부품·소재주에도 연쇄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

ARM 매출 27% 성장에도 주가 11% 급락...스마트폰 시장 부진이 AI 기대감 .....

7 원/달러 환율 1,357원대 강세

원/달러 환율이 1,357원대로 1.12% 상승(원화 약세)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환율 급등이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외국인 추가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美 '블루 쓰나미'에 달러·국채도 출렁...월가 돈의 흐름 바뀌나... 달러-원, 뉴욕장서 1,340원 중반대 거래...

8 최태원 회장 '롤러코스터 장세' 경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서울대 특강에서 과잉 유동성·AI 투자 쏠림 현상을 경고하며 중간선거 하나에도 증시가 '와장창' 무너지는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오너의 발언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태원 "2100조 투자, 나도 정상인가 싶었다...AI 경쟁에 베팅 불가피"... 최태원 "반도체에 돈 한꺼번에 몰렸다...롤러코스터 장세 계속"...

9 셀트리온·SK바이오팜 등 바이오 반사 수혜 주목

SK바이오팜이 분기 영업이익 첫 1,000억 돌파 성과를 내며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셀트리온은 브라질 시장 바이오시밀러 3종 출시 및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이 반도체 대신 바이오·뷰티·방산으로 순매수를 전환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뇌전증 신약 대박 터졌다"... SK바이오팜, 분기 영업익 첫 1000억 ... 글로벌 시밀러 판매 호조에...셀트리온, 롯데바이오와 생산위탁 손 잡나...

10 엘앤에프 역대 최대 출하·LFP 수주 호재

엘앤에프가 2026년 연간 역대 최대 출하를 전망하고 LFP 25만톤 수주 및 2028년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급락 국면에서 2차전지 소재주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어 주목된다.

영업손실에도 '역대 최대 출하'...엘앤에프, NCM·LFP 투트랙 승부수... [종합] 엘앤에프, LFP 25만톤 수주...2028년 생산능력 12만톤 확대...

💡 오늘의 관전 포인트

오늘 코스피는 미국 나스닥(-5.52%)·필라델피아 반도체(-12.25%)의 대폭락 충격으로 장 초반 강한 하락 출발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 추가 매도세와 함께 추가 급락 위험이 높으며, 5,200~5,300선 지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면 외국인이 반도체를 던지며 바이오·뷰티·방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감지된 만큼, 셀트리온·SK바이오팜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헬스케어 종목과 엘앤에프 등 2차전지 소재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 1,357원대 고환율 지속 여부 및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오늘 장세의 최대 변수이며, WTI 반등에 따른 에너지·정유주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